

교회 목표

신랄한 예배
천국입문 알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대한민국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광성 편집인: 노광원 편집: 이태복

나가자! 전도하자!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하반기

나가자! 나가서 잃은 자들을 찾자.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의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심판이 임박하니 망명일 때가 아니다.
서둘러 나가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자.

세상의 눈에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숨은 능력이니
모든 부끄러움 떨쳐 버리고

둔한 입이라도 크게 열어 외치자
구원의 복음이 강렬함 줄려가도록

나가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으니
나가서 예수의 죽음을 전하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자.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나팔처럼 불어 외치자.

하반기에 교회는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일대일 전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를 앞두고 실시했던 일대일 전도의 불길에 사람들이 전기에 다시 한 번 전도에 힘을 쓰는 총현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10월 이후에 전도를 하여 새가족을 교회에 등록시킬 경우의 일대일 전도는 내년도 단기선교에 유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달고 오묘한 그 말씀(금요집회) - 천국 복음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입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제6장. 천국의 의

제7장 천국에서 요구되는 것 (2)

한결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요구한다. 때로 험하고 엄청난 우리의 의지를 요구한다. '제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리"(마 11:12, 눅 16:16 참조).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결정은 아주 근본적이고 철저한 결정이기에 '침노' 또는 '침입'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침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몇 가지 성경구절을 살펴보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막 9:45-47). '마침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짐을 주러 왔노라'(마 10:34). '무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눅 13:24).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인 단어들에,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결정이 얼마나 철저하고도 급진적임을 잘 묘사하고 있다. 부와 성공과 권력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물분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영혼에 관한 문제는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천국의 생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이다.' 천국은 철저하고도 확실한 결정, 또한 영적적인 결정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결정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결정이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까'(마 19:16b). 여기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며 구원과 관계가 있다 (23,25절).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영생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젊은 청년의 진지함을 인정해 주신 후에 명명하였다. '와서 나를 좇으라'(21절). 예수님의 요구는 이것이다. '너의 옛 삶을 떠나서 돌이켜 천국을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경우에 이 결정은 그리 간단하고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엄청난 희생을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단호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너의 결단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천국을 위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의 부가 너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 가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라. 그러면 자유로운 자가

되어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청년이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자가 되는 결정은 '나를 좇으라'라는 요구와 관계있다. 그러나 이 청년의 경우는 소유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모두 버려야만 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과 그 나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결정을 요구하셨던 것이다.

천국의 요구는 지금도 값은 치러야 하는 귀한 결정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리의 삶에 중장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야 한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종속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후암의 권세에서 검자법을 받아 하나님이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후에(골 1:13 참조).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게 되었다(롬 14:17). 그리고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빌 4:11-1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물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위의 부자 청년이 제일 사랑했던 것은 자신의 부와, 그 부를 나타내주는 모든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에게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관하여 물었던 것이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그는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키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소망을 사랑하는 그 세속적 사랑을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는다는(마 6:26-30). 그러나 이들의 사랑과 의지, 또 안전함은 그 선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삶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하러 일어나면 내일 일은 내일 열려할 것이요 한 날 그 료명은 그 날에 속하니라'(마 6:33-34). 그러므로 우리도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결정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는 철저하고도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 결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정을 잃을 수도 있다. 사역을 위하여 준 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았니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마 10:7,40).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요구가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사자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곧 하나님 나라의 왕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자들이 결단을 내리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행복한 고민을 나누어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결 자원봉사자 모집

살다보면 고민거리가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고민이 많을수록 머리는 복잡해지고 삶은 무거운 짐이 되지요. 만일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맡아주시는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벌써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시 68:1). 그러나 주님 주시는 더운날 청량제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여러분에게 행복할 고민을 한 가지씩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무슨 고민이길래 행복한 고민이냐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위한 고민입니다. **주님의 물 된 교화에 내 손길이나 내 보스가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라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번에 교회는 교회의 구석구석을 성도들이 직접 돌보고 성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이들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소양부의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미 장로님들은 새벽예배 후에 교회 주문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는 대학부에서 110명의 학생들이 제교교육관 전체를 청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행복한 고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교회를 위하여 내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리 사무귀하는 자원봉사 신청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교회를 섬기는 이 행복한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HEADING HEAVENWARD

“(1)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2)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3)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ohn 14:1-3)

Two thousand years ago, Jesus spoke the most beautiful word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v. 1). No one else in human history has ever made such a statement. Jesus wanted those heading heavenward to realize that their faith in God and in Him eliminates worry. Believers no longer had to feel uneasy about their earthbound time because He was departing this world to prepare a special home in heaven for each one of them. He said,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v. 2). There is no reason for Christians to be anxious or afraid because Jesus clearly sai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v. 3). His promise to return and take us to heaven is not only encouraging, but down right exciting! Imagine if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invited you for a free world tour upon his yacht, with every earthly luxury at your disposal. Would you not be excited? Well, Jesus invites all who believe in God and Him to live eternally in a heavenly home that He is making free just for them. He temporarily left this world to do this work, but He will come back to personally take each Christian to His place. Now, that is the amazing grace, total comfort, and pure excitement that only Jesus can provide! He alone makes your heavenward destiny a reality. That is why He said,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v. 1).

When we look at the other side of things, not Jesus’ side, but the worldly side of society, we find universal words, like “Be careful,” and “Oh my goodness what has happened now.” The lying, cheating, and deceiving actions of human beings make such words common. The poverty, oppression, and diseases that strike all nations are heavy. The discriminations, destructions, and terrors that take place on this earth are troublesome. Indeed, all these sinful things can make one worry, but Jesus specifically said,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He is not saying not to concern one’s self about deceit, disease, and destruction, but that in so doing to make sure that your faith not weakens. Of course, believers are going to undergo persecution and other hard times while residing on this earth(see 1 Cor. 4:9). We are going to face terrible situations, but God wants us to feel His peace in the midst of them. He wants us to rely on Him, and ask Him for comfort. Jesus said,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Jn. 14:27). If you strongly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have peace in times of trouble because He will give it to you. However, if you do not believe in Him, the worries of the world will fill your heart. Philippians 4:6-7 reminds us,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You can have peace in your heart, during all tribulations, if you really trust God and Jesus Christ. If your faith weakens, the worries of the world will fall in its place, and God’s peace will depart. So, if you are heading heavenward do not be worried about this earth. If you really believe that Jesus is preparing a place for you in heaven, you will have peace. Your faith will bring you joy against any

sadness in this world. Imagine a trusted friend asking you to wait just ten days for a large sum of money he is going to send you. If you really believe that this good friend is going to give you the money, you are not bothered about your current financial problems. Even though you have not received the money, you still experience enjoyment. If you really believe that Jesus has a special home for you in heaven, your faith will attack the bad situations at hand, and the joy you receive from this will protect you against despair.

Christians trust in God and Jesus Christ because they know that great happiness is coming their way. The kind of happiness that is eternal, not limited in any way. Heavenly things are going to heal everything. Jesus clearly said that He is coming to take believers to a heavenly mansion. They are really going to stay in an eternal place built by God’s hands, not human hands. Even though they cannot yet see it, and do not yet know how it was built, they still believe, “Things which eye has not seen and ear has not heard, and which have not entered the heart of man, all t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1 Cor. 2:9). Only Jesus can give you a heavenly mansion where every tear will be wiped away; and there will no long be any death; there will no longer be any mourning, crying, or pain (see Rv. 21:4). Do you believe it? Does it make you happy knowing that if you believe in God and in Jesus Christ that these things will happen to you?

Jesus Christ’s promise to retur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mises in the Bible. Fifty years ago, we had junky old televisions, airplanes, and air conditioners. Ten years ago, we did not talk much about the internet nor talk much on cell phones. The advancements of technology grow faster and faster, yet with all the new developments humans worry more than ever before because the end of the earth is still coming. After Jesus described the signs of the end of this age(see Mt. 24:4-28), He said, “So, you too,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recognize that He is near, right at the door”(Mt. 24:33). Human history shows us that His return is very close. So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ended, where more than six million people died, on May 15, 1948 Israel became a nation. Since then the biblical prophecies concerning Christ’s return are becoming known (see Luke 21:20-25). Terrorism, pollution, oil problems, and all kinds of nationwide battles are happening exactly as prescribed in the Bible. Luke 21:28 says, “But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straighten up and lift up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 Are your eyes facing skyward? Will you be able to see Jesus coming?

My dear friend, are you headed heavenward? I hope your destiny is not directed toward this earth. I hope your faith is not half in Jesus and half in yourself. Do believe in an eternal dwelling place built by Jesus just for you. Philippians 3:20 says, “For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from which also we eagerly wait for a Savior, the Lord Jesus Christ.” Do you really believe that, or do job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give you hope? Christians must live away from the place of their citizenship for a short time, but still their citizenship, happiness, and blessings all belong in heaven. Jesus gives us this great privilege. Are you sure your headed heavenward? The key depends upon whether you believe in God and also in Jesus Christ, or someone or something else. Amen. 

다음 주일 설교

천성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김성환 목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으로부터 이천년 전에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1절). 예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시간 때문에 불안할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늘에 특별한 처소를 준비하시려고 이 땅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2절). 그리스도인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3절). 다시 와서 우리를 하늘로 영접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흥분시킵니다. 가령,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자기가 비용을 다 댈 테니 같이 화와 여객선을 타고 거기 있는 명품들을 마음대로 쓰며 세계 여행을 하고자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 마련하여 거처 나누어 줄 하늘의 처소에 영접할 함께 살라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잠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완전한 위로이며 순결한 기쁨인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천성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영원한 처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1절).

믿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조심해!” “큰 일 났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인간들의 행동 때문에 이런 말들이 흔하게 사용됩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나라마다 사람들은 가난과 양재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차별과 파괴와 테러로 사람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1절). 속임이나 질병이나 파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 동안 압박을 받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고전 4:9). 심각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을 말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가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천성을 향하여 살고 있다면, 이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믿을 때문에 여러분은 슬픔을 이기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믿을 만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큰 돈을 가져다 줄 테니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친구를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당장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들떠서 기쁨을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기쁨 특별한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나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길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기쁨 때문에 낙심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행복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위대한 행복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나 재단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은 모든 것을 치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와서 신자들을 하늘의 처소로 영접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처소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처소를 볼 수 없고 그 처소가 어떻게 건축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의 처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씻겨질 것이며, 다시는 사상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제24).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므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 중의 하나입니다. 오십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이나 비행기나 에어컨의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십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상은 더 빠르게, 더 눈부신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은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끝이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마 24:24-28)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곧 앞에 이를 줄 알라”(마 24:33).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여러명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음이 분명합니다. 유대인이 사탕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눈에 띄게 성취되고 있습니다(누 21:20-25). 성경의 예언대로 테러와 환경오염, 석유파동과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말합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일어나 머리를 돌려 너희 구속이 가까웠음을 알라” 하신다.” 여러분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천성을 향하여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성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믿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믿는 반쪽자리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에 지으신 영원한 처소를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을 말합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혹시 좋은 직장이나 연금을 믿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본향을 떠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지금도 그들의 시민권과 행복과 기쁨은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이 것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성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성을 향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천성을 향하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수요일 예배 메시지

그들이 빌기를 다 하매

(행 4:31-33)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탄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회교도 해보고 힌두교 해본다. 그러나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는 제자들의
신앙을 꺾어놓을 수 없었다. 가가스로 풀려난 사도들
은 한 자리에 모여 성도들과 함께 일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한다(23,24절). 온 세상이 그들을 대적하
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으니, 곧 기도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최고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시며 전능하
신 하나님을 뵈옵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기다리신다. 그러나 우리는 얼
마나 자주 그 특권을 소홀히 여기며 반박하게 사용하시는가! 돌아켜 기도의 광장으로 돌아가고
록 하자.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사도들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흐르게 하자.

◆ **기도에는 기대가 있다** -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31). 기도를 한 그들의 마음에는 하늘로부터 놀
라운 평화가 임하였다. 기쁨과 확신으로 그들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확신과 기쁨을
얻었고 그들의 모인 곳은 크게 진동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셨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자(행
3:1).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비범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
자(행 3:33).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마 21:22, 요
15:7, 요일 5:15). 믿음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 **기적이 나타난다** - 믿음의 기도에는 기적이 따른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큰 지진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행 16:25,26).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었는데 이 일로 교회는 더욱
강해졌다(행 12:5,7).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전화를 움직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
(행 17:6). 갓세바네에서 홀로 씨뿌리며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루어지는 것이다. 갈릴래아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나타내신 하나님
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과 능력을 나타내신다(왕상
18:37,38). 우리에게도 기도의 이런 열매들이 풍성해져야 한다.

◆ **사역이 더욱 강조된다** -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
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어 이제도 저희의 위함함을 하관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
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라...”(행 4:29,30).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담하게 가
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뜨겁게 사
랑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더욱 헌신하게 된다. 반면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쓸데없는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대적한다
(민 13,14장 참조). 세상이 험박하고 위협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우
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행 4:20).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와 성
경이 똑같은 사람이었다(약 5:17).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 **영혼이 하나가 된다** -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
었다. “믿는 부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

◆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다** -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해줄 수 있었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예수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행 3:33, 1:8). 그들의 전도는 그들 자신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다
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행한 것이었다(고전 2:4,5). 기도의 사람들은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다** -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을 복을 빌며 “평강의 주께서 친
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니라”
(살후 3:16)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골 4:6,7).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총이 임하는
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
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권사칼럼

주님의 일은
주님이 친히 하신다이경현
(권사 2차회 회장)

지난 여름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주하고 미련한 죄인
인지를 깨닫는 회개와 계절이였습니다. 권사수련회를 준비하며 마
쁘게 지내던 어느 날 미국에서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에 계신 친정아버지가 병환으로 위급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둘
러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국으로 날아가 친정아버지의 병간호를 하
는 동안에 병환으로 누워계신 아버지의 건강도 염려되었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권사수련회 준비
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마쁘게 뛰고 계실 일
원 권사님들과 2차회(2,7,11,15)권사님들의 연속기도회, 그리고
권사수련회 때 있을 찬송가 경연대회 연습에 대한 생각과 염려로
하루하루가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권사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
하여 꼭 돌아야 하는 날짜에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제 안
타까움은 더 커졌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맡은 일을 못하
면 안 되는데... 안되면 어찌나!” 이런 생각들로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못난
생각인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며 또 얼마나 괴만한 생각인지 말입니다. 사실 제가 지교회장의 책임
을 맡고 일할 때에도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주
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교회장의 자리를 비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
다. 그런데 저는 그런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마치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제 모
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스러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
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라는 말씀(마 16:24)을 강단에서 얼마나 많
이 들려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
나...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며, 법사에 감사하
지 못하며 온전히 맡기지 못한 염려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뜨거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못한 저를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주었고, 권사수련회에
맞추어 서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도 덩으로 주셨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친정아버지를 뒤편하고 서울로 돌아오니 여러 가
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여행이 참으로 기쁜 것은 그곳에 저를
사랑으로 기뻐했고 기도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생각
을 하면서, 천국이 아름다운 것도 마치 그와 같을 거라 생각하였습
니다. 단순히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고 사랑도 없고 애용하며
꾸미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꽃기계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꼭 때문에 죽은 자 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
혀 죽으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늘 담대히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에 천국이 내게 소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나고 영광스
러운 영광 비리고, 그리고 빛는 것도 빛는 것이지만 영원토록 찬양
하고 경배할 수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다짐을 소망할 것이며, 십자
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난 후에, 늘 실수 많고
조바라는 죄를 붙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
습니다. 어찌 아니처럼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송하리다!”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저는 사람무 이원종입니다. 먼저 제가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현장에서 인형극으로 어린이사역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팀이 있었던 지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아서 아주 슬펐습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전도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팀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도록 몸 건강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팀장님께서 저를 보살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원종(사람부))

주의 능력으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고 선교기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는 것뿐이었지만 내 노력으로 그들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혼들이 제가 나눠주는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 한 영혼이 성장하고 훈련받아서 이 나라가 온통 주님의 물결로 출렁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처음에는 내가 아니면 저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못했다. 처음의 기록한 생각은 여러 가지 핑계 속에 묻혀졌다. 그러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마지막 날, 맞은편에서 내 도래 형제 3명이 걸어오고 있었다. 전도지를 주었는데 그들은 내 수 앞에서 길바닥에 그것을 던져버렸다.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났다. 주님의 복음이 마치 싸구려 전단지처럼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였다. 달리기까지 패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속으로는 '사랑 사랑 사랑해야지'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속으로 돌아와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사단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 꼭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선교를 다녀오면 항상 하게 되는 다짐은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도 선교해 줄 대담함으로 내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선교를 갈 때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아! 한국말만 알아들었어도' 라고 하며 답답했었는데 잘 통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 속에서 나는 병어리처럼 입을 열지 못한다. 기도하고 성경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하신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저를 사용하시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제게 허락해주셔서 제가 그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재홍(대학부))

♣ 이번 주에 출판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11(월)-10월 19(월)	11교구 6지역	정경수	10월 12(월)-10월 20(월)	8교구 9지역	김동필
10월 12(월)-10월 20(월)	8교구 6지역	최치용	10월 12(월)-10월 21(월)	10교구 추가	이현진

♣ 인재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4(월)-10월 12(월)	7교구 4지역	장강남	10월 4(월)-10월 14(월)	11교구 7지역	김인술
10월 4(월)-10월 13(일)	7교구 2지역	최대환	10월 5(월)-10월 13(일)	16교구 3지역	이상범
10월 4(월)-10월 13(일)	12교구 2지역	조준수	10월 5(월)-10월 14(월)	9교구 7지역	오재철

♣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10월 4(월)-10월 9(일)	직편 4	최상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물 우리에게 열려 주사
그리스도의 비약을 맛있게 하시기로 구하리"
(골 4:3a)

보잘 것 없는 나를 사용하신 주님

보잘 것 없는 저를 선교활동에 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처음, 선교지로 결정된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 때문에 그곳에 혼자 살고 계시어서 아버지도 뵈고 선교도 하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어혼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선교 모의도 자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곤 하였습니다. 이리저리도 단기선교를 여행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얼마 전 비자가 나오지 않아 그 나라에 못가는 상황이 되어 선교지가 다른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 처음에 가기로 한 나라에 큰 홍수와 전염병이 들고 있어서 상황이 많이 열악했는데, 저는 어쩌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뀐 나라가 아닐까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미흡했고 정말 복음만 들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적정인 않았지만, 막상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중 한 꼬마아가기가 특별히 기억납니다. 그 아기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해서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보잘 것 없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저는 정말 기뻐서 한국말로도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이후 그 아기가 우리를 이끌고 다니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지금 그 영혼을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기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아기가 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이 영혼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 선교사역을 보잘 것 없는 저에게 맡겨 주시고 제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미약한 중, 또 다시 기회가 온다면 어느 곳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과 교회와 기도해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차병철(고등부)

단기 선교사 및 현지인 사역자 기도제목

전선전 · 감경경 평신도 단기 선교사

이들은 2004년 7월에 61평간 선교를 계획하고 떠난 청년2부, 대학부 자매들입니다.

- 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성경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 ② 현재 언어 공부와 병행하며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 ③ 현지교회에 인도한 모슬렘들과 여성성경공부모임에 함께 하며 복음을 전해들은 친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헌신자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 ④ 날마다 새로이 만난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 ⑤ 단기선교 팀들과 잘 협력하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 ⑥ 4명의 동역자들(정화정, 김진정, 이송미, 유미나)이 서로 섬기며 화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 ⑦ 불안전한 차안으로 인한 모든 사고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옵소서

드래만 · 자키야 현지인 사역자

외선부에서 양육을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 ① 개척한 3대 지역 가정교회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 ②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 ③ 현재 내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옵소서
- ④ 아내 리리아가 1개월 전에 잘못 수술 받은 맹장(이 속) 회복되도록 하옵소서



나의 생활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는다. 엄마, 아빠가 안 깨실 때에도 형과 나는 꼭 읽는다. 왜냐하면 엄마와 항상 성경을 읽기로 약속을 했고, 약속은 소중하니 읽는다. 성경에 나오는 글씨는 내가 알기에는 어렵다. 가끔 나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서 "엄마 마음만 있어! 다 마음도 있지"라고 투정도 부린다. 하지만 엄마는 공부보다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다고 하신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하셨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믿는다.

유년부에서 예배가 끝난 후 만화 비디오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쉽고 재미있다. 종종 나는 엄마, 아빠가 교회 일을 마칠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거나 도서관에서 성경 만화를 보며 기다리기도 한다. 그곳에서 책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 생각이 떠올라서 좋다. 생각이 고와지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가정에도 드릴 때도, 헌금드릴 때도 장난을 치지 말아야겠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



이원혁 (유년부)

복음의 길을 걷는 전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살아있는 전도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만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은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이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 16:15).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빛과 함께 전해져야 한다. 어떤 빛인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삶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 함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이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즉, 복음을 전하라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생활과 인격은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며 변호사의 생활과 인격 또한 재판하는 데 중요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생활과 인격은 전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전도인이 전하는 복음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에 전도인의 생활이 부도덕하고 불건전하며 위선적이고 저속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무리 열렬히 전도하여도 전도가 이루어지지는 커녕 "당신이나 바로 사시오"라는 편지를 듣게 될 것이다. 성경 에수를 믿고 싶었어도 전도인의 모습에 실망하고 단념하게 될 것이다. 마치 전도인의 삶은 물론인 사기 전에 미리 보는 건물포토 같고, 미리 보는 영화 예고편 같다. 전도인의 삶은 바로 살아있는 전도지이며 불신자를 주님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전도지인 우리의 삶이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입으로 외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재가족들 가운데 80% 이상이 친척, 친구 등 이웃의 간접적인 권유로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와 믿음을 배우게 된 데는 전도자들이 흘린 눈물과 사랑, 그리고 삶을 통하여 보여준 전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인내하며 가르치시고 권하며 배후신 사랑을 통해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전도자들이 스스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의지하여 이웃에게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볼 때에 지금까지의 편견을 풀이하여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뉘우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강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이니라" (딤후 6:18-19).

양재동 목사(종동3부 지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에서의 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이 다닐 법이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려 두지 아니하고 등걸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

학교가 개강한 지 한 달여가 지나는 시점에서 저의 학교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 다. 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은 그 속성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 짠 맛을 내고, 음식 물의 부패를 방지하거나 병원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소금 용도로도 쓰이고 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조미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의 용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소금이 그 자체로 짠맛을 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짠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 가는 그 곳에 가서 있기만 해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우리가 있는 그곳 이 짠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그 자체로 짠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주님께선 절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놓는다는 사실을 말 합니다. 결국 버려놓는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요 아무 쓸데없는 소금이기도 합 니다. 그리스도 안에 위치한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소금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할 때 우리는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입 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역할을 다 하는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금이 주님 속에서 나오지 않은 채로 그 자체로 소금끼리 뭉쳐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해 쓸데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한 소금이 저절로 녹아 떨어져 더러 워지는 것이 겁이 나서 오히려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것이 아 닌지 소금으로서의 역할조차도 기대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해야 하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그리스 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신 십자가 복음의 빛입니다. 주님은 이 빛을 설명하시면서 그 빛은 숨겨지지 못할 빛이요, 모든 사람에게 비취어지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 빛이 동정에서 비취어 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동분의 주인 은 동물을 안전하게 놓기 위해 동정을 만들고 동정의 위치를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동물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도 주인이 하는 것이지만 동정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빛이 잘 비추도록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는 동물을 준비하시고 그 빛으로 하여금 세상을 비취게 하시며 그 빛이 잘 비추는 자리 역시 친히 마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파연 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 분의 도우심으로 신실하게 사용되어졌는가 생각해 볼 때에 많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의 모습은 영광을 돌리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금으 로서 뿌리져야 할 곳에 뿌리지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저의 모습은 "저희" 애엔 아무런 힘 도 발휘할 수 없는 그릇 작고 무용한 결정체로 보이거나 앉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 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능력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 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 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전파하라 마음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할례로
법식이 모래 함몰과 가로침으로 결박하며
결계하며 권하라"(딤후 4:2).

이정주 (대학부)



교회탐방 37 기전실 (관리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건물은 크기 때문에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들 중에 작은 것 하나도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겉으로 크게 들어나지 않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하는 기전실 직원들을 만나보았다.

“기전실 내에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실습니까?”

“기전실에는 크게 기계, 전기, 목공, 영선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 담당자들이 있지만 시설을 관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집사, 기계담당)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먼저, 기계실에서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기계실은 냉난방, 사택관리 등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선교관, 체육관 보수공사도 기계실 담당이었습니. 본당도 노후 되어서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진수 집사)

“건물들이 크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교회 냉난방 시설은 자동 제어기 10%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컴퓨터로 조절할 수 있고 각방의 온도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냉방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난방기간은 1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5월과 10월은 준비기간으로 저희들이 가장 바쁜 기간입니다.” (조규철 집사, 기계담당)

“전기실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기실은 교회 전체의 조명, 콘센트, 전선, 내선 등을 관리합니다. 전기는 본당, 교육관, 선교관, 복지관, 사택, 주차장, 가로 등들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용묵 집사, 전기담당)

“전와회선 50개로 교회전변반은 하나이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걸려오는 50통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는 대략 300여 개의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형일 집사, 전기담당)

“목공실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목재 기구들의 대부분을 목공실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테이블,

계시판 제작 등을 하고 각 부서의 장의자 및 여러 목재 기구들이 파손되었을 때 보수합니다.” (김광진 집사, 목공담당)

“영선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만니까?”

“영선은 시설의 보수를 맡습니다. 교강 난 문을 수리하거나, 보조키 시공하는 등 각종 시설보수를 합니다. 연례 특별이 담당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전실 직원들이 상황에 맞춰 일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집사)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고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잘 대에 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김광진 집사)

“성탄절에 외부조명을 준비할 때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기어오릅니다(웃음).” (조용묵 집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부탁이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 전에 모든 조명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교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묵 집사)

“냉난방은 방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써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견해로 각종 여부를 결정하기 힘듭니다. 전체를 생각해서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이진수 집사)

“성도들이 엘리베이터에 한 번에 너무 많이 타서서 무리가 많이 갑니다. 탑승한도에 맞추어 타고 다음 차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철 집사)

“각 부서에서 교회 비품을 조금 더 자신의 것처럼, 하나하나의 것으로 사용에 주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기전실은 사무국 소속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집사)

인터뷰를 마치고 지하주차장 1,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일러실과 전기실을 보았다. 교회 건물 밑에 그렇게 거대한 시설들이 웅크리고 있는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교회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묵묵이 일하는 기전실 직원들을 만나며, 진정한 주님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땅 위에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묵묵히 주님 주신 일에 순종하는 모습 말이다.

(편집실)

◀목공실

다움 주일 찬송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연가”

다움 주일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연가”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끝 영광의 소망이니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작곡자 윌리엄 뱌틀러 브래드베리(William Batchelder Bradbury, 1816~1868)는 19세기 중반에 찬송가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중 하나이다. 그는 보스턴에서 섬머힐과 메이슨에게 음악을 배웠고, 영국과 독일에서 6년간을 공부했다. 이 찬송은 1863년에 작곡하였다.

이 곡의 작사자는 영국 침례 교회 목사 에드워드 모우트(Edward Mote, 1797~1874)이다. “세상의 티는 합물하는 도래와 같으므로 오직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에수의 티 위에 굳건히 서겠다”는 찬송시로 1834년에 작사하였다.

“물결이 높이 일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세상에서 민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한 주간 동안 굳건한 반석되시고 소망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위원회)

새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641	정태영	19	고등부	최종순(3)	2658	윤수현	11	청년2부	김영호(11)
2642	이은향	6	장년1부	이진규(1)	2659	장미영	11	장년1부	김을평(8)
2643	이창우	6	장년3부	이수자(11)	2660	오현정	19	장년2부	김형곤(3)
2644	최정은	19	장년1부	최차윤(8)	2661	조영민	19	청년1부	김형곤(3)
2645	김근환	16	청년2부	김국자(1)	2662	남태근	19	대학부	조용준(11)
2646	김명태	2	장년2부	정규호(1)	2663	김종현	6	대학부	김세환(11)
2647	김미영	19	장년1부	정규호(1)	2664	채정식	18	소방부	구민자(18)
2648	박희영	11	장년1부		2665	신동주	14	청년1부	
2649	손진억	14	장년2부		2666	김종민	19	대학부	
2650	이예빈	19	고등부		2667	박말산	19	회신부	
2651	장혜미	19	고등부	최한나(19)	2668	전나	19	회신부	윤정훈(1)
2652	라지비	19	회신부	김재윤(6)	2669	마기	19	청년2부	윤정훈(1)
2653	임지영	19	고등부	김예선(2)	2670	조정환	19	대학부	홍정민(19)
2654	조옥순	10	장년3부	김전다(8)	2671	이재민	19	대학부	이수경(5)
2655	박영숙	3	장년1부	장석창(5)	2672	김용중	6	예배다부	김순자(10)
2656	추원철	18	소방부	김용영(18)	2673	김성준	17	예배다부	김순자(10)
2657	오창균	11	김영호(11)		2674	김명희	6	장년1부	김형곤(3)

* 송헌교회의 한 기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목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